



治山治水가 治國의 길

—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委員長〉

1. 엄청난 水害 피해

〈死亡 실종 184명·771億 피해〉 〈이재민 20만명〉 〈서울 대홍수 2萬채침수 9萬명 緊急대피〉 〈風納·城內·望遠洞 잠겨〉 〈限界 드러낸 洪水조절 「댐」〉 〈遊水池 태부족… 排水門도 허술〉 〈3시간 暴雨에 白旗든 수도권 水防〉 〈食水·전기 끊어져 춥고 배고픈 밤〉 〈生必需品 사재기 소동〉 등등…

335%의 호우가 끝난, 다음 날(9월 3일)夕刊新聞(東亞日報·中央日報)에 난 큰 제목을 대충 옮겨 보았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다. 이 결과는 그동안 우리가 해온 治山治水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결과라고 본다.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水害요, 조금만 안 오면 旱害라고 해서 야단 법석을 치기 몇번이었던가?

흔한 俗談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事前에 준비 못한 것을 비웃는 얘기지만, 그래도(때 늦게나마)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意志가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해마다 많은 〈소〉를 잃었으면서도 외양간을 고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마다 이러쿵 저러쿵 死後藥方

文 식으로 떠들고 나면, 그만이었다.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非理를 창피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설마 더 〈소〉를 잃겠느냐는 배짱 때문이었는가? 그도, 저도 아니면 더는 잃어버릴 〈소〉가 없다고 간단히 포기했기 때문이었는가?

창피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었건, 배짱 때문이었건, 아니 포기했기 때문이었건 간에 〈외양간을 고쳐야한다〉는 그 지극히 당연한 대책을 외면함으로써 일어난 이번의 水害는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다.

글자 그대로 舉國的인 피해다. 드러난 피해가 이정도지만 안 드러난 피해까지 합치면 더욱 엄청날 것이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과 人的, 時間的 노력까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번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2. 이번 水害는 天災之變이 아니다.

이번 水害를 간단히 天災之變 쪽으로 돌려, 마무리 하려는 사람이 있다. 天災之變 보다 무섭고 위험한 人災之變이 아닐수 없다.

9월 3일자 동아일보 〈휴지통〉자는 “廉普鉉 서울시장은 2일 水害地域을 시찰키 위해 서울

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유수지는 지난 72년 8·19 수해후 74년 S토건이 유수지 공사를 한데 이어 80년 6월 H 건설이 성산대로를 건설할 때 다리 교각이 배수관로를 건드리게 되자 배수관로 공사를 새로했는데 이때 설계 잘못이 아니었는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당국에서도 “水門이 무너진 것은 당초의 공사 부실과 평소의 관리 소홀(노후가 발견됨)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新亭洞 지역의 浸水 원인도 人災로 “주민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31일 저녁부터 펌프장을 찾아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펌프장 측이 이를 묵살, 1일 새벽 4시경 펌프장을 찾아갔을때도 배수시설은 아예 가동조차 않은 채 담당직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望遠洞의 경우 “주민과 유수지 관리직원이 2일 상오 8시 30분 이전에 배수문 양쪽에서 물이 샌다는 것을 구청에 신고했으나 2시간 동안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거나 事前에 미리 위험을 경고해 대피하게 했던들 얼마간의 가재 도구를 진졌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원망이고 보면, 이번 水害는 확실히 天災之變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난다.

3. 治山治水가 곧 治國의 길

治國의 처음은 治山이요, 그 마지막 매듭은 治水로 매듭짓는다고 했다. 즉 山을 잘 가꾸고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根本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왜 이 治國의 가장 평범하고 쉬운 理致 하나도 實行하지 못했는가?

그때, 그때마다 편리하고 쉬운 일만 선택하고, 눈에 그럴듯하게 들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기에 급급했던, 과오를 하루 빨리 시정하고 비록 느릴망정 또 어렵고 불편해도 확고하고 든

든한 일에 모든 行政力을 집중해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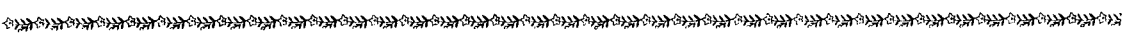
“水災때에 水災의 위험을 말하기는 쉽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구름 하나 없는 晴天에서 水災에 대한 점점을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이제 당국에서는 <漢江 종합 治水대책>을 곧 마련한다고 한다. 많은 <소>를 잃어버린 후의 <외양간 고치는 일>이겠으나 더 많은 <소>를 잃기 前에 꼭 實行해야 될 용기로, 共感의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그 對策에 이것만은 꼭 참고해 주기를 바라는 당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을 정말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구사해야 한다. 어깨띠나 두르고, 현수막을 쳤다고 해서 자연이 보호되는게 아니다. 자연을 성심 성의껏 모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연보호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몇몇 사람들 입 맛에 맞거나, 당장 보기 좋고, 쓰기 좋다고해서 자연을 적당히 가꾸는 식의 자연보호여서는 안된다.

둘째, 모든 산과 들에는 나무를 심어 산과 들을 푸르르게 해야한다. 1년에 한, 두어번 식목일을 정해 놓고 묘목 몇그루 심었다고 해서 治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것 없이 틈틈히 매일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번의 경우도 산과 들에 나무가 울창했던들 빗물이 그렇게 일시에 또 많이 강으로 물리지 않았을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신이 아주 몸에 깊이 배이도록 하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가 없는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라고 할 수 없다. 도시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活力을 심는 것이며, 그것은 그 도시민의 정신에 活力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 날, 도시에 나무가 없어 약간의 대기오



염 물질에 의해서도 도시의 대기는 크게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민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싫증을 느끼고, 불만(?)이 많아진다. 나무가 없어 汚染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도시를 온통, 나무의 숲으로 푸르게 해보라! 오염이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모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큰 일에도 밝게 웃을 것이다. 애써 治安을 위해 전경대원을 거리 곳곳에 세워 놓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시민들이 治安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타이르는 것이다. - 마음을 넓게, 크게, 높게 갖고 살자고

넷째, 全國土의 地形, 地質을 다시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 연구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의 國土開發(파괴가 아닌 保全을 전제로한 ...)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國土開發은 무엇을 어떻게 해볼까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안해도 될까 하는, 차원이어야 한다. 그동안 기적적으로 살아 남은, 全國의 Green belt가 오늘 날, 이만큼이나 환경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이던지 들추고 파헤치면 먼지(오염과 파괴)가 난다. 그대로 두고 잘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全國의 강에는 대규모의 下水處理場이, 도시에서는 완전한 下水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번의 水害 때문만이 아니다. 물의 흐름을 어떤 형태로라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염된 물을 그대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물이라는 인식으로 정성껏 깨끗이 해서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번의 水害는 量的인 피해였기 때문에, 댐으로, 모래가마니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質的인 피해, 즉 水質汚染에 의한 피해는 댐이나, 모래가마니 따위로는 어림도 없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天災之變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漢江 종합開發공사>와 <落東江 하구언 工事> 등 기타 물을 다스리는 모든 工事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4. 다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호소한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독일 국민들에게 “山林의 황폐에 의한 내환을 敵軍의 외환보다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외쳤다.

治山治水야 말로 國家를 強하게, 富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敵을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의 現實로도 그 어느 때보다 環境이 중요하게 保全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지난 號, 本誌 時論에서 나는 環境의 自發的인 保全을 위해 一體感 조성을 호소하고, 그 동기를 위해 국민적 합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團합의 合唱. 그것을 부르며 官民이 合心해 산과 들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고, 본래 깨끗한 물 그대로 잘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自然의 順理대로 살줄 알아야 한다. 물의 경우만 보자 ...

물은 한방울 두방울 모여, 계곡을 돌아 바위 틈을 지난다. 그리고 땅에 스미기도 하고, 폭포도 된다. 내가 모여 江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 큰 湄를 이룬다.

물은 때에 따라서 굳어지고(얼음), 날며(수증기), 흐른다. 그러나 굳었다고 해서 돌이 아니고, 날았다고 해서 새도 아니다. 특히 흐른다고 해서 세월이 아니다. 順理에 따라 잠시 변했을 뿐 물은 물인 것이다.

환경보전은 인류의 처음이자 마지막 지혜인 것이다. *